

자아정체성 개념으로 본 장소애착과 노인주거문화의 새로운 고찰

A New study on place attachment and elderly housing culture as a viewpoint of self-identity's concept

박정훈* 유재우** 장유경*** 손준혁****
Park, Jung-Hun Yoo, Jea-Woo Chang, You-Kyoung Son Jun-Hyuk

Abstract

The averag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obtained as a gift of modern science cannot hold itself responsible for extended life's happiness. It admits of no argument that the necessity of social preparation for minimizing bad health and longevity of unhappiness to aged people who are in the state of these continuous growth.

Recently, because of an aging trend, targeting on elderly housing expected continuous increased demand in housing market, this study is to comprehend it's characteristic and offer implications. For the characteristic of elderly housing, firstly it needs scientific analysis of related theory and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Also this study aims to look through and suggest an alternative included the special matters of Korean society with advanced foreign country's analysis of an alternative.

And judging from economic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ing to be presented as an important factor, choices of housing according to economic level are anticipated to show different forms. In future, to supply elderly housing,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housing providing various opportunity of choice is necessary. If studies proceed through expanded alternative, it is judged to be able to draw more varied results in elderly housing. Also, if going along with political dimension study, it is expected to offer more specific and effective solutions of the problem of elderly housing.

Keywords: Elderly housing, Self-identity, Place Attachment, Community dwelling

주요어: 노인주거, 자아정체성, 장소애착, 공동체 주거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과학의 선물로 얻게 된 평균수명의 증가는 연장된 생명들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노인들에게 유병장수의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의 필요성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인구의 7.2퍼센트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퍼센트에 이르러 오늘의 선진국과 같은 노인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¹⁾

이와 같은 고령화 추세는 세계적 현상이고 이에 대한

사회 전반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02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UN주관으로 고령화세계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노인관련 주요정책의 하나로 노인에게 편리한 주거와 환경의 보장을 각국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주거에 관한 정책은 더 이상 무관심 속에 방치될 수 없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고 민간이 협조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노인의 주거욕구에 응하고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노인주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노인 주거문제가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 중단으로 대개 소득이 제한적이며 사회활동의 중단으로 생활 근거지가 주로 가정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자가 점유율이 62.8퍼센트로 매우 높고, 대부분이 자기 주택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회보호이념의 확산으로 노인주거정책의 방향이 현 주거지에서의 보호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노

*정회원(주저자),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정회원,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정회원,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1) 통계청(2007). 2005-2030 장래가구추계. 서울:통계청. pp22-56

인들이 기존주택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주거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고 있다.2)

본 연구는 최근 고령화 추세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가구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노인가구의 특성을 위해 먼저 관련 이론 및 분석통계자료의 고찰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선진 외국에서의 대안 분석과 함께 현대 사회의 특수사항을 포함하여 도출될 수 있는 대안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II. 노인주거환경의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개념과 특성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개념을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3)하고 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저하에 따른 노년의 활동범위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노년을 위한 공간계획은 신체적 변화에 따른 공간의 융통성이 요구되어진다.

노년기에는 지능 및 학습능력의 감퇴와 기억력의 저하가 발생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치매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노년기 성격의 특성은 개인적 성향이 두드러지므로 우울증 증세와 더불어 내향성 및 수동성을 지니며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한다.

노년기 사회적 특성은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영향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의 축소로 인한 역할 상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에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내향적인 자아정체성을 보이는 현상은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영향과 더불어 노년의 사회적 특성으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4)

노년의 주거는 신체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게 차지한다. 따라서 노년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적 변화에 따른 노인주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노년기 자아정체성과 장소애착

1) 노년기 자아정체성

자아정체성은 자아와 정체성의 결합된 말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자아정체성은 에릭슨(1968)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획득해야 하는 발달과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에릭슨은 자아정체성을 '개인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연속성과 단일성을 지닌 주관적인 느낌' 개인적인 정

체성의 의식적 감각, 개인적인 성격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무의식적 지향성, 자아통합 활동의 기준, 특정한 집단의 이상과 정체성에 관한 내적 일치 등으로 표현하였다.5)

특히 노년기에 자아정체성이 중요하게 판단되는 이유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정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의 역할에 대한 변화 따른 영향으로 활동영역이 축소되어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적인 요소가 노년기 삶에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자아정체성과 장소애착

장소애착심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상황이나, 과거의 경험, 사회적 관계 등이 장소애착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장소 애착은 자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과 지역정체성과 결합하여 장소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장소애착의 5가지 요인은 정서적 인지, 애착심, 장소, 사회적 관계, 시간 이다. 이러한 5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장소애착이 생기게 된다. 장소의 애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을 포함한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6)이다.

존재양상과 과거의 주거에 대한 경험이 현재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장소에 대한 애착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주거는 개인의 경험의 경과를 통하여 자아정체성을 나타내고 이러한 자아정체성이 공간에서 장소정체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노년기의 주거의 의미

손세관은 주거환경을 하나의 의미 복합체로 보고 그것을 본질 파악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 주거는 인간 존재의 바탕이 되는 곳으로 이해되며, 개인과 집단은 주거를 통하여 스스로의 존재와 위치를 인식하고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해석7)하였다. '주거환경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거의 내재적인 질서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진솔하고 의미 있는 장소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거환경에 있어서 효율적 측면과 합리성 또는 형태의 구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 내부에 존재하는 실존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건축 작업을 통해 시도가 요구되며 접근방식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하였다.8) 이런 점에서 노인주거의 Aging in Place 개념은 중요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노인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주거실태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노인가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거실태를 파악하였다. 먼저 점유형태를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노인 가구는 자가 거주비율이 높게

2) 장영희(2008). 서울시 노인주거특성과 노인주거시설 수요 연구. 주택연구. 17(4). pp 95-114

3)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제시되었다.

4) 방지아(2002). 정신 사회적 건강증진개념으로 접근한 노인주거시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p52

5) 삼성정신건강연구소(2005).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문헌연구. 서울: 삼성정신건강연구소. p1

6) 임하경(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도시공학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pp10-11

7) 손세관(2004). 도시주거형성의 역사. 서울: 열화당. p34

8) 손세관(1990.) 주거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6(2). p51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장년가구의 63퍼센트가 자가 점유인 것에 비하여 노인 가구는 약 73퍼센트가 자가 점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경우 자가 점유비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에 거주할수록, 노인부부가구일수록, 소득-주택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 점유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거주 노인가구의 경우 약 65.2퍼센트는 자가, 17.6퍼센트는 전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9)

다음으로 주택의 유형은 전국 노인가구의 약 62퍼센트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거주 노인의 경우 그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거주일수록, 노인 독립가구일수록, 소득-주택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도시거주 노인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48.7퍼센트, 아파트 거주비율은 37.9퍼센트로 나타났다. 도시거주 노인가구의 아파트 거주비율은 장년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 44.2퍼센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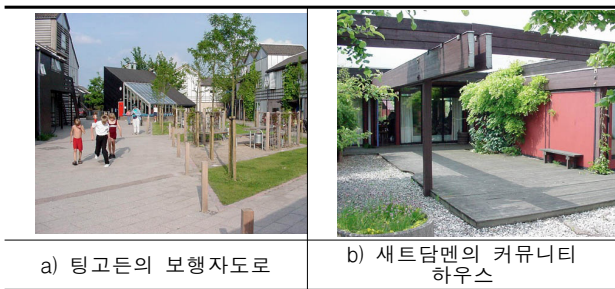
노인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주거공동체에 대한 실행 가능한 요소들을 적용하여, 한국적인 주거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노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안정된 주거에서 활동 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며 무병의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정착 노인공동체 주거를 도입할 때이다.

III. 선진 고령사회의 노인주거환경 분석

1. 덴마크

덴마크 최초의 협동체주거인 새트담멘과 스크러플라넷은 1970년대초 건립된 개인소유형의 협동체주거이고 1978년 지어진 텅고든과 드레예반켄은 최초의 비영리 협

표-1 덴마크 새트담멘과 텅고든



a) 텅고든의 보행자도로

b) 새트담멘의 커뮤니티 하우스

동체주거로 만들어진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그곳에 살 사람들이 자발적인 사업 참여와 주택의 디자인, 각 단계별 의사 결정과정에 모든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주택에는 부엌시설을 최소화하고 조리나 식사와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을 공유한다는 점과 공동생활시설을 개인적인 사적 공

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 주거형 집합주택의 장점과 주거단지의 장점들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11) 이런 주거에서는 고립에서 탈피하여 공동생활에서 얻는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주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이런 협동체 주거를 선택하기도 한다.

2. 미국

1988년 매카멘트와 듀렛이 덴마크의 새로운주거 유형을 정리하여 저서를 미국에 소개12)하면서 미국의 공동체 주거의 문화가 시작된다. 이들의 제안은 개별가족의 프라이버시나 욕구를 충족시키며 동시에 타 가족과는 협동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실천적 이익을 얻고자하는 주거형태를 만드는 것이었다.

표-2 미국 사우스 사이드 파크 주거



a) 사우스사이드파크 전경1

b) 사우스사이드파크 전경2

1993년 입주를 시작한 분양아파트와 연립주택 25가구를 주민들이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는 마을이다. 이 프로젝트는 1989년 참여주민들의 격조모임이 결성되면서 실질적 위원회가 결성되고 개발계획 전문가의 섭외와 부지 선정 등 개발 진행기진 중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 입주를 할 수 있었다. 입주 후에는 각자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여러 개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리에 참여13)하도록 하였다.

3. 일본

도시에서의 생활은 프라이버시의 보장과 안전성이 높은 주거공간을 추구하고 직주근접의 편리를 위한 강제된 공간에 갇혀 이웃과의 관계라는 커뮤니티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회현실에서 노인의 주거문화는 더욱더 폐쇄적이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모여 사는 즐거움과 자신들이 원하는 주택공간을 구성하며 공동체가 주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부터 즐거움과 편리를 확보하는 수요자 참가에 의한 주택공급 방식인 코퍼러티브(Co-Operative)방식은 토지의 취득, 주택의 설계, 공사의 발주 등 주택건설과정의 전 단계에 걸쳐 수요자들에 의해 조직된 자주적 조합이 공동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14)

코퍼러티브 방식은 사회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 뿐 아

9)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09.서울:통계청. 노인 가구 부분 내용 재정리

10)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09.서울:통계청. 노인 가구 부분 내용 재정리

11) 주거학 연구회(2000) 세계의 코하우징. 서울: 교문사. p30

12) 주거학 연구회(2000) 세계의 코하우징. 서울: 교문사. p99

13) 주거학 연구회(2000) 세계의 코하우징. 서울: 교문사. p102

14) 주거학 연구회(2000) 세계의 코하우징. 서울: 교문사. p145

나라 경제적인 측면과 개인 생활의 편리 등 많은 장점을 가진 공동체 주거로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⁵⁾

표-3 일본 캄캄모리와 유코트



1995년에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고령자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도와가며 살아 갈 수 있도록 계획된 집합주거형태로 개인전용의 주택부분과 취사, 식사, 대화를 즐기는 공동생활시설로 구성되었다. 이런 주거방식을 컬렉티브(Collective) 하우스이라 하며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일본 최초의 다양한 가구가 모인 임대형주거는 캄캄모리라는 컬렉티브 하우스이다. 비 혈연가족이 마치 가족처럼 함께 모여 사는 것이 특징이다. 2003년 6월 입주가 시작되었고 총 28세대, 1세부터 81세의 다양한 연령층이 전통가족과 독신가구, 비혼모가구 등으로 형성되었다.¹⁶⁾ 가장 큰 특징은 166m²의 공용공간으로, 거주자의 공동식사와 가사, 아동과 사무 및 취미활동공간으로 구성되는데 각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정신적 공간으로서 남녀노소 모든 구성원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판단된다.

IV. 노인주거문화의 새로운 고찰

선진국들은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지금 노인과 그들이 속한 사회와 집단이 보다 더 향상된 제도와 결속을 통해 긍정적인 주거의 미래화에 대처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들이 처한 각 개인의 형편과 의식 구조 및 과거경험들을 살려 활동적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계하고 개인과 개인 간, 개인과 가족 간, 개인과 사회 간의 연결과 관계의 지속을 통한 협조체제를 유지 발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노인주거의 문제를 장소와 이웃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재창조라는 해제로 풀이한 모델들은 종래의 공동체가 가지는 단점인 강요와 압박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는 대안적 삶의 공동체 주거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방식의 노인주거의 장점은 그곳에서 하나의 확대가족을 이루면서 노년을 맞을 수 있고 노인들이 요구하는 Aging in Place 개념의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과 함께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15) 주거학 연구회(2000) 세계의 코하우징. 서울: 교문사. p150
16) 주거학 연구회(2000) 세계의 코하우징. 서울: 교문사. p166

V. 결론

사실 노인주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복지차원에서 '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한다면, 노인'가구의 주택시장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최근의 다변화되는 주택시장은 개별 가구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소비의 기본단위인 가구의 선택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노인가구들의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내 준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가족이 노인보호와 부양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인 사고였으나, 최근에는 노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노인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가 비율이 높으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이러한 추세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한다면, 노인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심리적, 경제적 특성이 주거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개인의 특성에 따른 주거의 선택은 상이한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노인가구주택의 공급에 있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거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확장된 대안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다양한 노인가구의 주택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적 차원의 연구가 함께 진행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인주거 문화에 대한 실마리를 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박홍철(2010).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택규모 및 주택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2. 방지아(2002). 정신 사회적 건강증진개념으로 접근한 노인주거시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3.. 삼성정신건강연구소(2005)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문헌연구. 서울: 삼성정신건강연구소.
- 4.. 손세관(2004) 도시주거형식의 역사. 서울: 열화당.
5. 손세관(1990). 주거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6(2).
6. 임미숙,김종립,김용순,김주진(2003). 인구.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개발및 공급전략예비연구. 서울:대한주택공사.
7. 임하경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도시공학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8. 장영희 (2008). 서울시 노인주거특성과 노인주거시설 수요 연구, 주택연구, 17(4).
9. 주거학연구회(2000). 세계의 코하우징. 서울: 교문사
10. 통계청(2010).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09.서울:통계청.
11. 통계청(2007). 2005-2030 장래가구추계. 서울:통계청.